

## 57장 의인의 평안과 구원 약속

### 1. 의인의 평안과 악인에 대한 심판 (57:1-13)

지도자들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사회에서 의인들이 소멸된다. 실상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취하신 바 되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의인들이 없어진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만큼 소경이 된 것이다(57:1-2).

여호와께서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 전체를 향하여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우상을 섬긴다. 심지어 자녀를 바치기까지 하면서 신을 조종해 보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며 동시에 우상 숭배에는 음란한 행위도 따라왔다(57:3-10).

하나님께서서는 그러한 음행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우상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57:11-13).

### 2. 구원의 약속 (57:14-21)

여호와께서는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분의 성전에서 살고 안식일의 언약을 지키며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고 하셨다(57:14).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다(57:15). 그들의 ‘탐심의 죄악’ 을 인하여 그들에게 진노하고 치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 징계를 받아도 회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57:18) 하고 약속하셨다. 입술을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 모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렐 2:17).

그러나 악인은 안정되지 않아서 더러운 것을 늘 솟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징계를 받으면서조차 자기 길을 걸지만,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하며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일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 57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까? (3-10절)
2.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에 날려갈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13절)
3.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한 어떤 자와 함께 거하셔서 마음과 영을 소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5절)
4.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지만 여호와께 고침을 받은 그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임할 것입니까? (19절)